

지역 매아리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정읍시는 지난 1일 정읍시체육회관에서 감성기 정읍시장, 유진섭 시의회의장,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축하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정읍시민의 장 수여, 기념사 축사, 축하영상 메시지, 시민의날 노래 제창, 식후 축하공연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오늘 축하공연은 시민이 서로 어울리고 축하하는 한마당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아마추어 시민들이자로 축하공연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화합의 장이 되었다

정읍시장은 "변화·발전·회합으로 더 크고 행복한 정읍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12만 정읍시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읍의 새 역사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지원제도 설명·토론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은 부서 과·계 및 지·파출소를 순회 내부고객에게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주민과 접점이 많은 부서 및 지·파출소 입구에 범죄피해지원 홍보 배너를 순차 설치 내·외부 고객이 지원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가시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현수 서장은 "선제적이고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아낀다."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전개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2일 신림면 게이트볼장 일원에서 300여명의 지역민들에게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연합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봉신 전기, 한방, 치과의로, 문화공연, 푸드봉사 등 18개 분야 150여명이 참여해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되새기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살기 좋은 전북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페스티벌

생태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도모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가 국가습지보호지역과 탐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 운곡습지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회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일 이산면 용계마을 우리술학교에서 열린 페스티벌은 지역주민과 학생 그리고 12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역 애코매니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이산면 용계·독곡·고창읍 부귀·매산·독곡·송암·호암 등 6개 마을 주민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가 주관해 마련했다.

이날 농악놀이와 강강술래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30여 년 전 운곡습지 주변의 옛날 지도와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리고 운곡습지의 독특한 문화와 생태를 전시해 운곡습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을별로 반딧불이가게, 고인돌 떡방앗간, 호암찜집, 오메이골 접방 등 부스를 운영해 누에고치 반딧불이 만들기 체험, 우리꽃차와 다도체험, 습지마을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



2일 이산면 용계마을 우리술학교에서 열린 페스티벌은 지역주민과 학생 그리고 12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역 애코매니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했으며 6개 마을 부너하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한 생태반상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김동식 협의회장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청정함을 보다 널리 알리고 운곡습지의 생태환경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역할을 강화하고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길수 고창군부군수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주민들이 우수한 생태자원인 운곡습지를 잘 보전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모범적인 생태관광 페스티벌 개최하여 마을주민의 화합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자리가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 최종발표회 개최

20개팀 200여명 참여... 우수공동체 4개팀 선정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민들기를 위한 2017 정읍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 최종발표회가 지난 1일 정읍시 제2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창업공동체분야와 마을공동체분야로 나눠 개최된 최종발표회는 총20개팀(마을1개팀, 창업 9개팀) 2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최종발표회를 통하여 우수공동체 총4개팀을 선정하였는데,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감곡면 진교마을', '농소동 삼하타운이파트'가 창업공동체 분야에서는 '아직어린대', '늘며 배우자 전통놀이' 팀이 선정되었다.

2017년 정읍시민창안대회는 지난 1

월 공모를 시작으로 70여시간의 씨앗 단계(창안학교)를 진행하였고, 뿌리단계 공동체를 선발하여 실현자금인 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공동체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정읍시민창안대회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민들기를 목표로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씨앗·뿌리·줄기·열매 단계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년까지 285개의 공동체를 발굴했고 단계별 지원전략에 따라 열매단계 27개, 줄기단계 43개, 뿌리단계 185개 팀이 활발한 활동으로 지



역사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생기 시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주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무너진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해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 특산물 활용 다양한 테라피 푸드 선보여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푸드테라피 개발 메뉴 최종보고회와 시식품평회를 개최했다.

2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푸드테라피 참여업체 22개소, 음식관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시식품평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고창군의 대표 식품인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이번 품평회를 진행하기 위해 고창군과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지역 내 참여업체별 메뉴에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해 참여업체의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메뉴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해당 메뉴를 홍보하기 위한 POP 등 각종 홍보물도 지원하여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푸드테라피 메뉴리뉴얼 사업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수행하는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잘사는 명품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과 삼락농장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연구소는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기반으로 식품산업 및 음식문화 체험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을 통해 외식업체 메뉴개발, 제품개발, 여행상품 개발 및 푸드테라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해 복분자와 장어를 활용한 새로운 음식과 가공상품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물관리현장설명회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는 2017년 물관리 현장설명회 및 부안군수 김종규 특강이 2일 부안 컨벤션센터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농업인 유대 및 협력 채널 강화를 통한 교류활성화, 농업인 고객관리를 통한 수자원관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개최했다.

물관리현장설명회는 공사의 주요업무 및 역할, 물관리 현황, 한국 농어촌공사에 대한 홍보물 상영, 부안지사 전반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했으며, 농업현장에서 물관리를 담당하

고 있는 시설관리원에게 노고와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 부안군 김종규 군수 특강에서 부안지역의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로 나누고 배부는 따뜻한 부안을 만들자고 강조하였으며, 공사 직원들의 책임이 중요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남출 지사장은 "급변하는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물관리 과학화와 수리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실시

정읍시는 2일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14개 기관·단체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대형화재 발생으로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화염과 연기에 노출되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상황 판단회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한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재난대책본부 가동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통한 수습·복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주관기관인 정읍시와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제8098부대, 한국전력 정읍지사, 전기안전공사 등 230여명과 고가사다리차, 소방·경찰차 등 구조 및 복구장비 33대와 재난구조 드론 등이 투입되면서 실제 재난현장처럼 긴박하게 진행됐다.

이날 현장훈련을 주관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김생기 시장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재난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